



보도자료

- 교통정보기획팀 팀장 이영균
사무관 김정완
- ☎ 02-2110-8694
- initialx@moct.go.kr

• 1월 9일 배포(총 3매)

• 1월 10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권 버스서비스 개선된다

-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전국으로 확대 추진 -

'05년부터 수도권 및 대전권 일부에 도입되었던 광역버스 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대 추진되어 광역권 버스서비스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버스 승객수 증가, 대기시간 감소 등 광역 BIS의 긍정적인 사업효과를 바탕으로 올해 부산~양산~김해축, 천안~아산축, 마산~창원축, 제주~서귀포축 등 총 4개축 300km에 대한 사업 발주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07년 광역BIS 사업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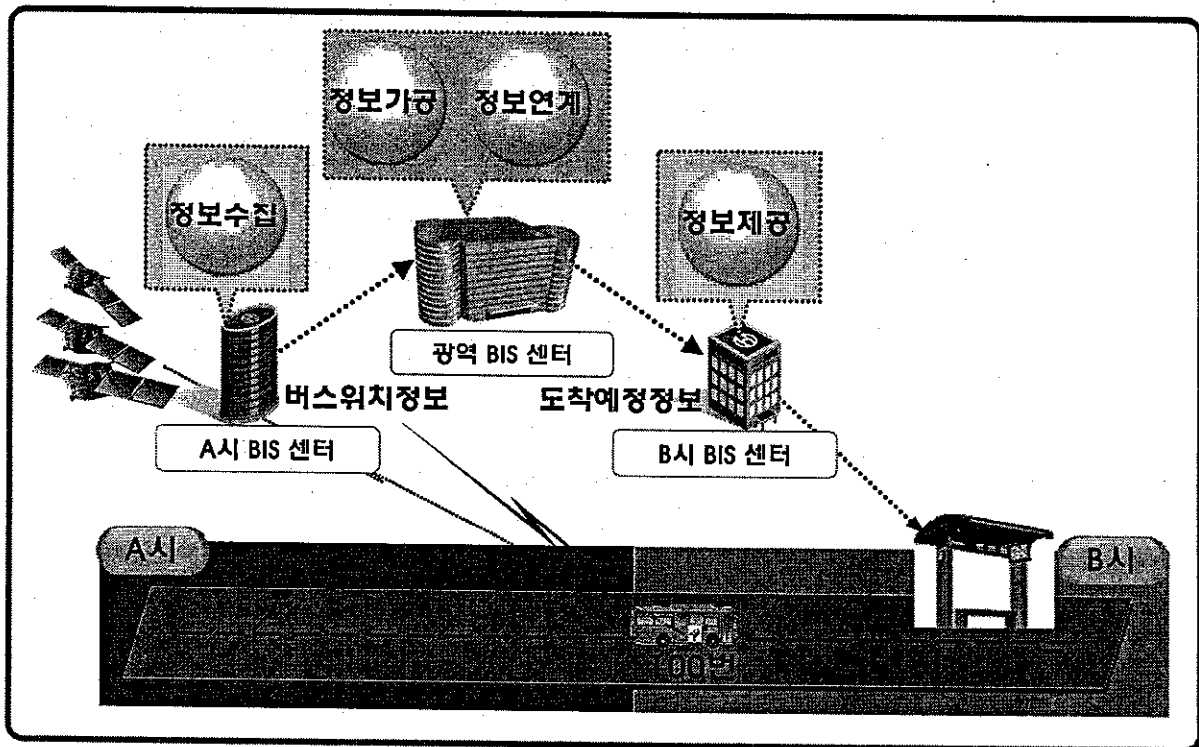
대상축	사업구간	연장	사업비	비고
부산~양산 ~김해	김해시청~동래~웅상, 구포~통도사	170km	63.2억원	9월 준공예정
천안~아산	천안터미널~아산현충사	24km	45억원	9월 준공예정
마산~창원	경남대학~성주고가도로	23km	33억원	10월 준공예정
제주~서귀포	제주 함덕~서귀포 남원	83km	38.4억원	10월 준공예정
총계	-	300km	179.6억원	-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추진한 버스정보시스템(BIS)은 해당 지자체 버스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지자체를 넘나드는 광역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이번 광역BIS가 구축될 예정인 김해시의 경우, 자체 BIS를 '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김해시 총 운행버스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부산광역시 버스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시민들이 버스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감소되는 측면이 있었다. 본 광역BIS 구축이 완료되면, 부산, 김해, 양산간 버스정보 공유를 통해 해당 지자체를 운행하는 모든 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시민들의 대중교통편의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도시간을 경유하는 버스이용객에게 버스현재위치, 도착예정시간 등을 정류장 안내단말기, 인터넷, 휴대폰, ARS 등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함에 따라 버스대기시간 감소, 정시성 향상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교통부는 올해 부산~양산~김해등 4개축 사업외에도 대구권, 광주권등 타 광역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의 확대·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그에 따라, 향후 본 광역BIS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면 자가용 운전자의 버스 교통수요 전환을 통해 대중교통활성화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개념도>